

6·25 기념주일

이 세 우(목사, 전북 김제 금평교회)

본문 : 엡 2:11-18

제목 : 6·25를 민족화해와 대단결의 날로 삼자

### 1.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내일은 공교롭게도 한국 전쟁 발발 51주년이면서 새 세기 첫 해의 단오절(음 5.5)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남한에 있는 농민들과 북한에 있는 농민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남북농민 통일 단오절 명절 놀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인 오후 4시에 남쪽 농민들이 북쪽 농민들을 만나기 위해 동해항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남한 농민 1000명, 북한 농민 1000명이 어울려서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물동이 이고 징검다리 건너기, 장기,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를 갖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배경에는 올 봄에 남한 농민들이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북녘 땅에 못자리용 비닐을 전해 주어서 큰 도움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다 보니 정도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이번 단오절 공동행사를 갖자고 제안하는 쪽이 있었고 드디어는 양쪽 모두가 합의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바쁜 철에 금강산에서 남북농민단합대회를, 그것도 비싼 경비 들어가면서까지 갖느냐고 의아해 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정과 내용을 듣고 보면 이해가 가면서 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늘 먼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북농민 통일단오 명절놀이는 무엇보다도 점점 사라져 가는 단오명절을 남북농민들이 앞장서서 되살린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민들에게 단오놀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봄철 농번기에 그 힘든 농사 중 피로를 풀고 하루 걸판지게 돌아보는 단오절은 누가 뭐래도 농민의 명절이었고 민족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한 사회의 문화는 물질문명 속에 급속히 퇴폐문화로 물들어 가더니 어느새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명절인 단오가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오를 남북농민들이 앞장서서 살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 세기 첫 해의 단오절은 공교롭고 절묘하게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51돌이 되는 날에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있어 큰 아픔을 주었던 6·25 한국 전쟁, 한 민족이 피를 흘리며 싸운 안타까운 그리고 부끄러운 전쟁.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는 이 상처,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세기의 첫해를 기해서는 6·25가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는 날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결, 통일을 기원하는 날'로 드높이고자 그들은 고백하며 출발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일 만나는 단오절 행사는 무엇보다도 남북 공동의 농민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 분단의 사슬을 끊고자 자주적으로 통일 운동에 나섰다는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농촌 교회는 남북 농민들의 이번 6·25 맞이 통일 행사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남북 농민들의 만남이 조국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 제 끼는데 한 몫을 다하기를 기원합니다.

## 2. 막힌 담을 헐라

오늘의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막혀진 우리 민족의 아픔이 먼저 떠오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마찰과 갈등, 미움, 폭력, 원수 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 됨의 단절이 있습니다.

창 26: 14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롬 8 :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고전 3 : 3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약 3 : 14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성경은 죄의 근원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중간에 '막힌 담'이 나오는데 이는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성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으로 말라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주님의 평강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던지, 주님과 의 대화가 없든지.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다가도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그 담은 서로의 교제를 파괴하고 서로의 인격을 파괴하고 결국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낳게 만듭니다. 담을 사이에 놓고 이 악과 죄는 더욱 커져 갑니다.

최근에 흥행되었던 한국영화 중에 '공동경비구역 (JSA)'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한국군인과 북한 병사의 우정의 이야기였습니다. 38선으로 갈라진 담 속에서 벌어진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남한 병사가 우연히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러 나갔다가 지뢰를 밟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 병사가 그것을 발견하고 살

려 줍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몰래 남한 병사는 북한 초소에 가서 자주 놀게 됩니다. 형님 동생으로 사귀었던 따뜻한 우정의 관계는 북한 다른 한 병사의 개입으로 또다시 철저히 갈라지고 결국 서로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그래서 비참하게 서로 싸우다 끝내 모두가 죽는 영화입니다. 아직도 높게 쳐진 담을 확인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담을 헐라하십니다. 이것처럼 우리 민족의 담도 헐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담을 허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 주셨고 서로의 교제를 주선해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실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부터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과 진실의 마음으로 막힌 담을 헐어 버립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믿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 이럴 때에야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힌 담을 헐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민족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3.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약 성서에서 여러모로 자주 사용된 말이 평화입니다.

눅 2 : 14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

요 14 : 27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엡 4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이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평화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현재 각 나라가 무기를 증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순박한 농민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고속도로 점거 시위를 하고, 야반 도주를 하고,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외침과 아우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군사무기를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에 사들이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예산(김대중 정부 99년도 미국산 무기 구매액수 42억 4,000만 달러, 이는 김영삼 정부시절 21억 9000만 달러의 두 배에 달함, 현재 미국은 올해 자기나라가 만든 100억 달러의 무기를 살 것을 강요하고 있음)을 퍼붓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들이는 이유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2001년 3월 21일 국방부 발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기를 잔뜩 사들이는 것이 평화를 지켜내는 것일까요? 오늘 6·25 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서에서 그 답변을 찾고자 합니다. 성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총, 칼, 전차, 공격용 헬기, 미사일 등 무기들을 없애고 그것들을 녹여서 쟁기, 삽, 괭이, 낫, 호미 등 농기구로 만들라(미가 4: 1-5)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성서 전체의 흐름과 사상은 전쟁에 대해서 미워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 어디를 펴 보아도 평화를 지키고 실현하려는 정신과 사상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현재 남한에서 사들이려고 하는 무기의 공격목표와 대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정말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고, 한 핏줄을 나눈 형제이며 함께 살아야 할 한민족입니다. 어떻게 한 형제에게 총, 칼을 겨눌 수가 있단 말

입니까! 오늘의 현실과 미래적 대안으로 남쪽 북쪽 모두는 무기도입을 위한 국방예산을 줄이고 평화군축에 앞장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물론이고, 이 땅 남북한의 민중들, 특별히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 4. 평화를 위협하는 자

오늘 날 국제 관계를 나타내는 말 중에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조 섞인 말이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말은 없을 듯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위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6·25전쟁이 남북한의 상황보다는 이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어났다는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소련, 중국 등 그들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잘 쳐다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다시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우리가 우방국, 지원국으로 알고 좋은 감정을 가져왔는데 정말 그런지 우리 국민들이 의심이 가질 때가 요새 와서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미국의 태도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을 연상한다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절대 약세에 놓여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산물 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 경기(景氣)를 위해 우리나라에 비싼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시 미 대통령이 5월 1일 워싱턴 소재 국방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깜패국가'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국 차원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미국을 포함한 우방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얼핏 그럴 듯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완전히 미국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명분은 강대국가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보호하자는 안보개념을 말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공중마저도 장악하고 군비 무한경쟁을 통하여 상대국가들은 거꾸러뜨리고 계속 세계 지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북한 등의 소위 '강대국가'를 빙자하여 자신의 '강대 짓'을 정당화하려는 위선이 숨어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시간에 이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6·25기념주일로 예배드리는 날이거니와, 지금 남과 북은 화해와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는데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과 패권주의가 이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태도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야심 속에는 한반도에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제2, 제3의 6·25 전쟁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또다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또 다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남과 북 모두가 죽는 민족 공멸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위협하는 막힌 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반(反)평화적이고, 반(反)생명적인, 막힌 답을 거부하고 물리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 5. 마치는 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단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에게서 전쟁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명령이며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남과 북의 막힌 담을 헐어 내고 울타리를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농촌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주께서 죄인 된 우리들을 하나되게 하신 것처럼 가족끼리, 친지끼리, 교우끼리, 이웃끼리, 남북끼리, 생명끼리 하나가 되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예배가 이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단오에는 잠시 바쁜 농사일들을 멈추시고 그늘이나 물가에 나가서 하루쯤 푹 쉬시면서 이웃들이랑 정답게 지내시는 것은 어떠실 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